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수혜주 “희색”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중 2050년 20%로 확대 ... 그린카 4대강국 도약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후 대체에너지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린홈 100만호 공급과 그린카 4대 강국 도약 등 녹색성장 전략이 정책목표로 부상하면서 태양광,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자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회의 생산과 소비의 관념 및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조화시켜 환경친화형 사회를 이룩하자는 개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을 실현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2%에서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 이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2000년 2만대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5년에는 전체 시장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량도 2007년 656대에서 2012년까지 3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는 2006년 2.2%에 그쳤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 11%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이 증시에 반영돼 삼화전기(14.59%), 성문전자(14.68%), 삼화전자(14.94%), 삼화콘덴서(14.87%), 필코전자(14.76%)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달렸다.

이전창호(14.85%), 에스에너지(14.91%), 동양제철화학(-1.04%), 동진썬미켈(6.57%), 소디프신소재(0.13%), 엘앤에프(1.96%), 휴켄스(3.39%) 등 태양에너지 관련주도 대부분 강세였으며, 풍력발전 관련주인 유니스(5.52%), 태웅(0.40%), 평산(3.53%), 동국산업(0.46%) 등도 대체로 올랐다.

탄소배출권 관련주인 후성(-4.09%)과 KC코트렐(7.18%), 원자력 발전 관련주인 두산중공업(2.34%), 한전 KPS(-1.23%) 등은 초반 동반 강세를 보인 후 장 후반 등락이 갈렸다.

현대자동차(-0.96%), LG화학(2.91%), 삼성SDI(0.56%), LS산전(-2.75%), S&T대우(-2.31%)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완성차기업과 배터리 생산기업도 희비가 엇갈렸다.

대우증권 정근해 연구원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주들은 전세계적으로 과거부터 주목받아오던 분야라서 새롭지는 않지만 정부가 정책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 테마주들은 추세적으로 무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심 밖으로 벗어날 것”이라며 “후성, 휴켄스, 동양제철화학, 소디프신소재, 동국산업, 엘앤에프, 삼화콘덴서, LG화학, 삼성SDI 등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18>